

	<h1>보 도 자 료</h1> <p>제공일 : 2023년 8월 16일</p> <p>사 진 : 2매</p>	작성과	의회사무과
		담당부서	부서장 : 김차민 담당 : 이창형
		연락처	061)830-6094

고흥 군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코앞 저지 규탄 목소리 높여

- 「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고흥군 어민대회」 동참

-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고흥 녹동항 인근에서 어업인과 군의회 이재학 의장을 비롯 군의원(11명) 및 수산관계자 등 어민 1,000여명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“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라!, 어민 다 죽는다!”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 대회를 가졌다.
- 이날 현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 한복판에 각 소속 어민 연합기를 앞세워 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 한다”고 외치며 집결 했다.
- 또한, 대회 마이크를 잡은 고흥군어민연합회 박형근 회장은 “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파괴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!”고 목청 높여 규탄했다.
- 한편, 고흥군의회는 한발 앞서, 지난 3월 17일 고흥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이 ‘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’을 대표 발의 전체 의원 일동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.
- 남해안 청정지역 고흥군은 3.8면이 바다이고 해안선 길이만 745km로 10,375명의 어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국민 먹거리인 김생산량 전국 1위, 미역 전국 2위를 책임지는 수산물의 산지이다.

